

‘기울어진 각운들’ 7인의 회화·조각·영상·설치, 김현진 기획

NEWSis() | 기사입력 2013-04-29 08:21



【서울=뉴시스】 유상우 기자 = 남화연(34)·문영민(45)·윤향로(27)·이미연(35)·정은영(39)·차재민(27)·홍영인(41) 등 작가 7명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담은 실험적 작품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 2관에 풀어냈다.

‘기울어진 각운들’을 주제로 6월16일까지 회화·조각·영상·설치 20여점을 선보인다. 큐레이터 겸 비평가인 김현진(38)이 기획한 전시회다.

전시장에는 큐레이터가 세운 길고 육중한 기울어진 하얀 벽이 있다. 이 벽에는 이미연의 드로잉이 매달려 있다. 강이나 바다의 조난과 구조 현장 보도·기록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먹지를 대고 베끼면서 일부분을 남기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들이다.

남화연은 1층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작업을 설치하고, 차재민은 지난해 송도를 관찰하며 제작한 영상 작품을 내놓았다.

문영민은 제사나 장례 등 가부장적 사회에서 흔히 목격하는 ‘절’에 주목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절을 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그렸다.



정은영은 개인·문화·여성사적 사료가 되는 과거 여성국극 배우들의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 공간에 프로젝션으로 선보이고, 윤향로는 다양한 성적 이미지들의 영상을 수집해 재구성한 비디오 작업 등을 설치했다.

김 큐레이터는 “주제나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비전으로부터 어떠한 제목이나 방향을 설정해 기획했다기보다는 추상적인 리듬이나 작업들의 운율을 떠올리며 마치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의 전조를 드러내는 공간이길 바라면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기획전시를 매년 열 계획이다. 02-735-8449

swryu@newsis.com